

공단검진은 공단역에서



(조감도)

찾아오시는 길 3호선 공단역 앞

MEDI 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대구북구)

평일 : 08:00~16:30
토요일 : 08:00~11:30

1호선 환승 [명덕역] → 3호선 [공단역]
2호선 환승 [청라언덕역] → 3호선 [공단역]

BUS : 527, 708, 719, 724, 726, 730, 750,
200, 250, 251-1, 300, 북구1, 북구4, 칠곡2

신천대로
여성회관
3호선공단역
이마트 트레이더스
칠곡
팔달교
성서

MEDI 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대구북구] 전화예약 053)350-9000

푸른신문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제1,147호

세무사 정수득 공인증개사 사무소
대표 정 수 득 H.P 010-8773-3910
양도소득세 등 조세컨설팅, 신속증개
매물형상접수, 공동증개 환영
등록번호 27290-2020-00170
T.053-568-4600 F.053-568-4601

창간 :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달서 · 달성 지역신문
www.prsinmun.co.kr

성서최고의 휴트니스클럽
미과 SPLEX
헬스 / 스쿼시 / 골프 / 유도
최고 시설의 사우나 / 탁구센터
본관. 053) 593-9990~7
신관. 골프장&스�파리플 : 053) 584-0775

헬스 연간회원 댄스 · 요가 · 필라테스 · 스피닝 무료수강!
자우나 웰스 참숯가마
100% 참숯 24시간 골프 연습장 스파
300대 주차장 완비!
585-0100
대실히 2번 줄구 대백마트 찾았

포장사 전문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효성익스프레스
항상 우편집을 이시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무료전화 080-7824-080
대표전화 521-7824, 635-7824
달서원 654-7824 수성원 794-7824 북구원 355-7824
논현원 611-7824 화문원 639-7824 남구원 473-7824

지면안내»	
지역	03~9면
고령	12면
성주	13면
지역사랑파트너	15면
종합	16~19면
기고	20~21면
교육	23~25면
문화	26~27면
건강	29면
운세·날씨	30면
피플	31면

달서구의 희망, SNS 콘텐츠로 이야기하다

제1회 희망달서 SNS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선정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달 25일 '제1회 희망달서 SNS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선사유적지로 떠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담담한 내레이션과 함께 담은 동영상 작품 '새로운 희망 관광도시 달서로의 시즌여행' (장재원 외 1명)에 돌아갔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 공모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작품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달서구 희망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해, 행정, 관광, 문화, 자연 등 달서구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영상, 웹툰, 캐릭터 등 총 38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 위원회에서 주제 적합성, 작품성, 참신성, 홍보 활용도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종 10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으며, 당선작에는 상장과 함께 50만 원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선정이후부터 지속적으

로 달서구 홍보를 위해 활용되며,

달서구 SNS, 홈페이지, 소식지 등

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시청사 유치를 위한 SNS

콘텐츠 공모전을 열어 총 10개 작품

대상(새로운 희망 관광도시 달서로의 시즌여행)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옛) 두류정 수장이 신청사 최저지입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언택트시대를 맞아 SNS홍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당선작을 통해 대구의 새 시대를 여는 희망찬 달서구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공모전 당선작 3면〉

〈자료제공: 달서구청〉

사문진 주막촌 노을 보면서 잘 가라!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언택트 관광지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달성군의 사문진 유람선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저녁노을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사문진 주막촌은, 가벼운 산책과 산행코스 뿐 아니라 500년 된 팽나무와 함께 조성된 생태탐방로가 자연 속의 할링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사문진 유람선에서 감상하는 낙동강의 저녁노을은 연인,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낙동강으로 저무는 저녁노을과 어우러진 붉은 빛의 갈대가 연출하는 장면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없는 것으로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사진작가들에게는 이미 최고의 사진 명소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사문진 유람선은 지난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오후 5시 경 사문진 나루터에서 출발한다. 달

성군은 사문진 주변을 지역의 새로 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문오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언택트 관광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사문진 유람선에서 아름다운 낙동강의 저녁노을을 감상하면서 지

친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일출

명소를 찾는다. 그러나 일몰이 보여주는 감동 또한 일출의 감동 못지 않다. 사문진에서 저녁노을을 감상하며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듯하다.

변경식 기자

TALK 푸른방송 공식 SNS에서 지역소식과 이벤트, 다양한 강좌정보를 만나보세요.

GCS CULTURE CENTER 푸른방송 문화센터

WINTER, 2020

겨울학기 회원모집

/ 강좌기간 2020년 12월 1일(화) ~ 2021년 2월 27일(토)
 / 접수기간 11월 2일(월) ~ 선착순 마감
 / 접수문의 감삼점 053) 565-0877~8
 서재점 053) 624-0500

New Class 새롭게 만나는 시간! 신규강좌

프랑스 자수 수 10:30~12:00 100,000원 / 재료비 100,000원 구리야 대한유럽자수협회대표	3D펜 창의융합지도자 금 10:30~12:00 6회 90,000원 / 재료비 100,000원 ※3D펜, 재료비, 자격증응시료, 자격증비용 포함 민진아 전문강사	아프리카 전통악기 엄지피아노 칼림바 목 14:00 ~ 14:50 (소수정예6명) 120,000원 / 교재비 10,000원 ※악기 상담 후 구입요망 (첫시간 악기대여 가능) 황신애 한국칼림바협회 대구2지사장
팡야팡야 유아체육 토 12:00~12:50 (5~7세) 8회 54,000원 / ※준비물 : 실내화, 물 체리선생님 전문강사 ※1월, 2월 진행	팡야팡야 음악줄넘기 토 13:00~13:50 (6,7세) 토 14:00~14:50 (8세이상) 8회 54,000원 / ※준비물 : 실내운동화, 줄넘기 체리선생님 전문강사 ※1월, 2월 진행	3D펜 창의융합 주니어반 금 16:00~16:50 (7세~초등) 10회 75,000원 / 재료비 45,000원 민진아 전문강사

지역

달서구,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학습형 창업 생태계 조성**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제1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올해의 평생학습사업 단체 부문'에서 대구 최초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달서구는 '배움으로 일자리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석이조! 동아리 주식회사 사업'으로 학습형 창업환경 조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상(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습형 사회적경제 창업 사업인 '동아리 주식회사'를 통하여 1,025개의 동아리를 육성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생활 속 평생학습을 실천해 평생학습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달서구는 사람의 곧 경쟁력 입을 쇠시하고 '학습동아리 육성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1,025개의 동아리를 육성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습형 사회적경제 창업 사업인 '동아리 주식회사'를 통하여 10개 동아리를 마을기업,



제1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달서구는 앞으로 학습형 일자리와 창업환경 활성화를 만들 예정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평생학습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재능나눔 활동 등을 지원하여 타인과의 공동체 학습을 통해 주민 간 유대관계를 높이고, 학습 결과물을 이웃 및 지역사회와 나눔"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제1회 희망달서 SNS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구 분	당선자	작품명	상 금	분 야
대 상	끌까지 간다 (장재원 외 1명)	새로운 희망 관광도시 달서로의 시즌여행	150만원	동영상
최우수	달서언니와 아이 (김가영 외 1명)	달서언니가 말하는 희망달서	100만원	동영상
우 수	황원준	같이 갈래요?	50만원	동영상
우 수	김지영	달서의 꿈	50만원	동영상
우 수	박혜원	흥미드스	50만원	동영상
장 려	드림걸즈 (채인영 외 3명)	언제나 달서구 (Always Dalseo-gu)	20만원	동영상
장 려	박정은	이제 데이트는 달서구!	20만원	동영상
장 려	오상우	희망달서를 힘차게 달린다!	20만원	동영상
장 려	호림이 (곽태용 외 1명)	60만 구민의 달서구가 전하는 희망이야기	20만원	동영상
장 려	조영찬	나를 숨 쉬게 하는 곳, 달서	20만원	동영상

광고는 해야하는데
내가 광고가 결정 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문과 케이블방송 광고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 푸른신문 광고의 장점

용통성 _ 지면 크기, 위치 선택이 자유롭고 가격대 다양 **적사성** _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내용으로 광고 가능

정보성 _ 광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전달 **키털로그성** _ 소핑안내 및 행사 안내

우수한 독자층 _ 가정, 직장에서 회람 가능, 광고 열독률 높음.



광고문의 053-572-6000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 '참공약 실천으로 꽂피우겠습니다'

달서구, 2020년 하반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회의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약이행 구민평가단과 주민배심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구민과의 약속인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 보고와 평가를 공유하는 2020년 하반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구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에게 그동안의 공약이행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내실 있는 공약이행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은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주민들이 구정에 직



접 참여해 공약을 평가하고 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민 평가단 12명과 주민배심원 11

명, 당연직(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반기 1회씩 운영되고 있다.

달서구청장의 민선7기 공약은 '일자리 창출 확산지원 강화', '글로벌 창의 명품학군

조성', '인간미 느끼지는 따뜻한 공동체', '활력 넘치는 생활문화', '자연을 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

에서 공약이행에 대한 중간 점검과 공약계획의 조정·변경 등 12개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5월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1,200여 공직자와 함께 노력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 본부가 전국 기초자치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018년, 2019년에 이어 대구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획득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약속으로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주민평가단이 평가결과와 의견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남은 기간동안 공약이행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푸르른 달성, 꽂피는 달성, 주민과 함



께하는 녹지 공간 창출 등 우리 군 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달성군 '도시녹화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2020년 도시녹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에서 '세계적인 숲의 도시(GREEN CITY)'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8개 구·군의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 조경지·기로수 사업관리, 가로환경 개선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도시녹화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달성군은 송해 공원 조명 분수, 대실 역 벽천폭포 등 수경시설 확충, 한평

정원 조성, 계절별 꽃 단지 조성 등 아름다운 경관연출 및 어린이 공원 조성, 가로환경 개선 등 고른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초석을 위해 기존의 관 주도의 사업방식을 탈피해 주민들이 마을의 도시미관과 환경개선에 직접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사업', 화원읍의 '천내천 명품하천 만들기 사업' 등 주민 참여형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푸르른 달성, 꽂피는 달성, 주민과 함



께하는 녹지 공간 창출 등 우리 군 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달성군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대구시가 주관한 2020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구·군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는 2020년 지적·토지관리·지적재조사·주소정보·지가정보업무 5개 분야의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했다.

그 결과 달성군은 지적·토지관리·지적재조사·주소정보·지가정보업무 분야 전반

아 2019년 토지정보업무 종합 평가 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달성군 관계자는 지난 5월 종료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서 대구시 전체 업무량의 34%를 처리했고, 일관된 측량성과 유지를 위한 지적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 지적측량 성과과일의 효율적

인 관리로 지적업무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수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하고 '달천1지구'의 측량을

<자료제공: 달성군청>

아동친화도시 달서구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 한마당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달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친화모니터단원 및 지역 아동센터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모두가 신나는 놀이마당! 친구들아~ 함께 놀자'라는 주제로 놀이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아동친화모니터단 워크숍 개최 시 모니터단원들이 제안한 아동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아동들에게 활력을 불어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아동권리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달서구 별빛캠핑장에 '달서별빛 숲속·생태놀이터' 개장, 용신동 선원공원과 장기동 길우공원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아이들의 호기심 및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놀이터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놀이 한 마당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19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달서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60만+ 희망달서'를 향해!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달 27일 2021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안) 자문·심의 및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달서구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정책 5개년(2019~2023년) 종합계획의 5대 핵심정책(일자리·결혼, 출산·육아, 정주여건, 고령화)을 중심으로 2020년도 인구정책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성과 공유, 2021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안)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내년은 모든 세대의 구민들이 행복한 미래를 확신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결혼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켜 든든한 출산·육아·정주여건·고령화)을 중심으로 2020년도 인구정책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성과 공유, 2021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안) 추진과제에 대한

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대구시 8개 구·군 중 최초로 결혼, 출산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2019년 5월 출범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 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달서구민과 함께 저출산 극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 했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달서구 취업노크 대구서부고용센터

관리·사무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케이디건설 053-581-7935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건설)	무관	월 180만 원 이상
(주)티케이씨 053-582-5454	생산·품질 사무원	무관	연 3,500만 원 이상
(주)전진이터프 053-585-2895	자재·구매 사무원 (기계·자동차·금속)	고졸 이상	시급 8,720원 이상
정드레이저 053-592-4012	경·소형 화물차 운전원	무관	월 20~230만 원
주식회사 희운기 053-568-0991	경리 사무원	무관	연 2,200만 원 이상
두경금속밸리 주식회사 053-583-3190	총무 및 일반 사무원	고졸 이상	월 210만 원
(주)전진이터프 053-585-2895	경리 사무원(제조)	고졸 이상	시급 8,590원 이상

기술·기능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계명대학교 053-580-6681	긴급 보수 및 영업원 (아파트 기계·전기 시설관리)	전문대졸 이상	월 202만 원 이상
(주)한국캡 053-588-8644	CNC 산업 조작원 (NC산업 조작원)	고졸 이상	연 2,400~2,600만 원
주식회사 에스네탈 053-584-9616	캐드캠 기능원	무관	월 250만 원
신우테크 053-29-5194	플라스틱 금형 제조원	무관	월 250만 원
신우테크 053-29-5194	플라스틱 금형 제조원	무관	월 300~400만 원
신한정공(주) 053-719-6343	자동차 부품 조립·검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일본기계조립원 053-592-4081	일반기계 조립원	고졸 이상	연 2,800~4,500만 원 (상여 20%)

단순 생산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이엔씨아이텍 053-585-7708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주)피듯한 세상 053-295-8603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대기분체 053-586-4050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월 180만 원 이상 (상여 20%)
(주)제이NG 053-583-4050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해인창호 053-58-5999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월 1,795,310원 이상
한진산업 053-588-9662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영업(판매), 운전 배송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대림프라운 053-588-1922	자기차 운전원	무관	연 2,850만 원 (상여 300%)
(주)우성에프티 053-591-5788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무관	연 3,200만 원 이상
(주)신화테크 053-586-6741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문대졸 이상	연 3,006만 원 이상
종인포장(주) 053-581-2516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주)전진이터프 053-585-2895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고졸 이상	시급 8,590원 이상
블루전산 053-639-4919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고졸 이상	월 190만 원 (상여 10%)

*문의: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508 www.work.go.kr/daeguseo

ANIBOX

애니박스 디지털 182번

CHANNEL J

채널J 디지털 123번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희망도시

달서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달 25일 사람과 동물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희망도시 달서를 실현하기 위해 ‘달서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및 동물보호단체 등의 홍보를 통해 최종 6명을 선발, 이날 위촉식을 갖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실시하는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6시간)을 이수하

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과 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주민 대상 동물의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펫티켓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달서구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관련 소음 및 소유자 의무 준수 사항 위반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지도단속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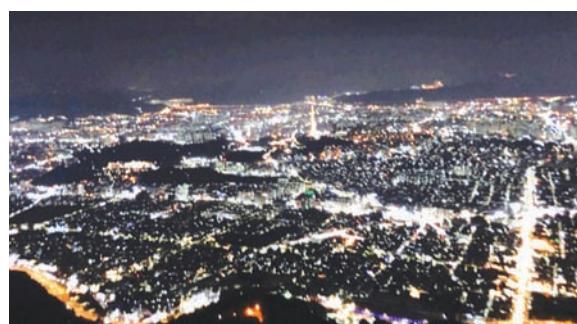
달서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식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대구 지역 최초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운영하는 만 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아름답게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백만불짜리 애경 ‘앞산전망대’ 야간산행



대구는 앞산과 팔공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근교에 아름다운 등산로가 참 많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새롭게 또는 곳은 앞산전망대이다. 특히 이곳은 야간에 등산해서 보는 대구시내 애경이 무척이나 아름다워서 외지인들이 일부러 애경투어를 올 정도이다. 몇 시간 등산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40분만 등산하면 멋진 애경을 볼 수 있으니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앞산전망대에 오르는 코스가 많지만(가장 쉬운 방법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 가장 빠른 등산코스는 안일사 코스이다. 앞산전망대의 애경이 유명해지면서 등산로 초입인 안지랑골 입구에 주차하느라 좁은 길에 차가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좀 걸더라도 대덕식당 맞은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이나 대덕식당 건너편 버스정류장을 검색해서 오면 된다.

이곳 등산로는 앞산전망대로 오르는 가장 빠른 루트이지만 중간지점인 안일사까지 경사가 무척이나 가파르다. 경사가 무려 45도나 되고 시멘트길이라 오르고 내려올 때 무척이나 피로감이 많은 길이다. 그래도 안일사까지 오면 코스의 절반을 온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앞산전망대까지 가로등이 잘 설치되어 있어 라이트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애간이라도 등산객이 많아 무섭지 않다. 이정표도 잘 되어 있어 길잃을 염려도 없다.

안일사는 고려 왕건이 후배에 견훤을 피해 은적사에 몸을 숨기고 이곳에 와서 편안히 쉴 수 있었다 해서 안일사(安逸寺)로 이름 지은 곳이다. 지금도 안일사가 위치한 안지랑골 안에는 왕건이 숨었다는 왕굴이 남아있다. 앞산전망대에는 화장실이 없으나 이곳 안일사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고 절 안에 간로수가 있어 복도 출입할 수 있다.

기자가 찾아간 금요일 밤에는 꽤 쌀쌀한 날씨에는 불구하고 대구의 아름다운 애경을 즐기기 위해서 연인끼리 가족끼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산전망대에 올라와 있었다. 낮에 보는 대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40분만 등산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애경을 볼 수 있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으리라. 그러나 외지에서도 이 애경을 보기 위해 대구를 방문하겠지. 다른 도시에서 일부라도 찾아오는 관광명소인데 대구시민이면서 아직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이번 주말 앞산전망대 애간산행 어떨까? 백만불짜리 멋진 애경에 가슴이 뻥 뿐이며면서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랠줄 것이다. 서순옥 객원기자

달서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은 환경보호과 박정식 팀장(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방 구축), 여성가족과 김영화 팀장(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 데이), 건강증진과 최정남 주무관(온라인 화상 교육으로 영양은 Up~ 코로나는 Down~)이다.

환경보호과 박정식 팀장은 성서산업단지 및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드론 및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입체적 환경감시방을 구축·운영하여 신속하게 접침함으로써 미세먼지관련 민원을 30% 감소시켰다.

여성가족과 김영화 팀장은 ‘결혼장려,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 데이’를 기획하여 결혼작령기 자녀들의 짹을 부모들이 직접 찾아보는 기별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결혼공감대를 확산했다.

건강증진과 최정남 주무관은 코로나19로 영양플러스 대상자 교육 및 상담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별도 추가 예산없이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교육 및 실시간 채팅 상담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맞춤형 온라인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격려하고, 12월에는 부서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장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청>

푸른방송이 만들어가는
디지털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D·UHD 방송

TALK | 지금 바로! (053) 551-2000 www.gcs.ca.kr

2020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합평가 달성군 청소년문화의집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합평가’에서 달성군 청소년문화의집(관장 박성수)은 최우수기관, 청소년센터(관장 김수용)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평가를 이뤘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은 전국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중에도 상위 5개 기관에 포함되어 여성가족부 정관상과 포상금 1백만 원을 수여받게 됐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합평가는 2년마다 이뤄지며, 사업관리역량, 사업운영성과,



소년들이 미덕을 배우고 실천하며,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미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달성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생활지도·상담·체험활동·급식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적서비스며, 현재 초등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노력들이 큰 결실을 맺어 기쁘고 앞으로



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광고문의
053. 572-6000

예비사위 며느리 찾아 봄시데이

달서구,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데이(day)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결혼장려를 위해 지난달 27일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직접 사위, 며느리를 찾아보는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 데이(day)’를 올해 두 번째 운영했다.

한해가 더 가기 전 자녀의 배필을 찾아주고 싶은 부모에게 힘이 되고자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행사장에 도착한 부모님들은 어색한 첫 만남 속에서 자녀의 자랑과 결혼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면서 금세 이웃처럼 친해졌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먼저 자녀의 나이, 키, 직업, 성격, 이상형 등에 대해 수줍은 소개를 한 부모님들은 관심가는 상대를 찾아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고르는 마지막 순서에서는 주저 없이 선택지를 작성한 결과 14팀이 매칭되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달서구는 매칭 결과를 부모님께 안내하고 서로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자녀들이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5일 최초로 개최한 행사에서도 6커플이 매칭되고, 매칭된 부모들은 당사자끼리 만날 수 있게 연결해 주며 좋은 결과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 데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들은 여성가족과 (☎ 667-3791~2)로 신청하면 된다.

달서구는 인구절벽 재앙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화목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결혼공간 토크, 커플매니저 봉사자 양성, 민·관 러브라인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결혼문화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본점식 기자



#TREND
#PLUS
#CHANNEL

CS 푸른방송
GREEN CABLE TELEVISION STATION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채널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놀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는 프로그램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 보고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감동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 참여방법: 사연과 관련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은 푸른방송제작팀 E-메일 gcsup@gcs.ca.kr / YellowID@gcsch4
호 053-551-2002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방송시간

매일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종합편성채널(종편)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강! 선 캐릭터들이 힘자리에 모였다.
진보한 시사는 박수받지만 진부한 시사는 외연 받는다.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강적들이 둥쳤다.
고품격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 JTBC 토요일 밤 9:00



인생을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사소 하지만 궁금해 긴밀 수 없는 질문들
그럴 땐!!! '질문 하라! 아는 형님이 답할 것이다.'

나이도, 출신도, 성격도, 외모도 전혀 다르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추측하고/실험하고/전해주는 '아는 형님'만의 인생 해답!

케이블 채널



▶ tvN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

환상적인 멜로 판타지의 주인공, 남자 구미호

그동안 드라마에 나왔던 구미호는 대부분, 사랑스러운 여자 구미호들이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남자 구미호다.
당장 긴이리도 빼주고 살게 만드는 신비 한 얼굴로,
오직 한 여자만을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순정남.
구미호 "이연"은 여성들이 꿈꾸는
기장 동양적인 판타지가 될 것이다

구전동화 속 주인공들이 돌아온다! '모던' 한옷을 입고!
인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액션!

새로운 무술과 OG 시퀀스를 통해 그간 보지 못했던 독특한 비주얼의 액션을 보여줄 것이다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VOD)

▶ 푸른방송 VOD 극장동시 상영작

소리도 없이

의의 없이, 계획에 없던 유괴 범이 되다!

범죄 조직의 학살을 받아 근면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시체 수습을 하며 살아가는 태인'과 '창복'.

어느 날 단골이었던 범죄 조직의 실장 '용석'에게 부탁을 받고 유괴된 11살 아이 '초희'를 얹지로 떠맡게 된다.



담보

"담보가 무슨 뜻이에요?"

예고 없이 찾아온 아이에게 인생을 담보 잡힌 두석과 종배. 빚 때문에 아저씨들에게 밀려진 담보 승이.

두석, 종배, 승이 세 사람은 어느덧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데...

돈 받으려 갔다가 인생의 보물을 만났다!



문의전화 053.551-2000

*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치매 걱정없는 우리마을 ‘치매보듬마을 현판식’

고령군(군수 과용환)은 지난달 27일 쌍립면 산주리 마을회관에서 2020년 다 함께 만드는 ‘치매보듬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

‘치매보듬마을’은 치매가 있어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경북형 치매안심마을로, 2017년 운수

면 유리를 시작으로 성산면 가호호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과용환 군수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치매어르신이 마을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치매보듬마을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새마을운동 50주년기념비 제막식 및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고령군(군수 과용환)은 새마을운동 제창 50주년을 기념하여 고령군 생활촌 맞은편에 기념비와 기념식수비, 기념식수를 심어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새마을회원들의 노고와 성취를 격려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모임의 번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 50주년 기념비 제막식과 새마을지도자대회,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한 번에 개최하였고 내번을 최소화 하여 필수인원만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소규모로 진행했다.

2020년 한해의 사업 실적으로 음·면을 평가하는 새마을 운동종합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에는 우곡면새마을회, 우수상에는 쌍립면과 운수면, 장려상에는 대가야읍과 다산면, 덕곡면 노역상에는 성산면, 개진면이 수상했다. 또한 군수표창, 의장표창, 새마을 중앙회 표장을 수여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해광 새마을회장은 “50년 간 고령을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해 선배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뜻을 이어왔기에 오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하며 새마을운동을 함께 해준 전·현직 새마을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과용환 군수는 “새마을회원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의 고



령이 있었고 앞으로 더 큰 고령이 이루어나가는 원동력 또 더 큰 새마을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며 “앞으로 새마을이 이루어갈 업적도 모든 고령군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고령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81억 지급

고령군(군수 과용환)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지난해 쌀직불금 지급금액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81억 4,000만 원을 4,736농가에 지급완료 했다고 밝혔다.

소농요건을 충족시 1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소농직불금과 농가별 재배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평균 100~205원을 지급받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고령군은 올해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장마·태풍으로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운영

우울, 불안감 등 쉽게 확인

고령군(군수 과용환)은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2020년 생명사랑 문화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달 26일 무인정신건강검진기를 고령군 청 민원실에 설치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으로 힘들지만 여전히 이유로 정신건강검진을 꺼려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정신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무인정신건강검진기’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지역주민

이면 누구나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우울 및 스트레스 등 자신의 정신건강상태를 검사 할 수 있으며 검진 결과

지를 바로 인쇄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검진 결과 고위험군 이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개인정보처리 등으로 고령군정 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과용환 군수는 “무인정신건강검진은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도를 평가하여 접근성이 편리

엘레강스한 성주참외 만들기

2020년 경북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참외농가에서 발생하는 버려지는 참외를 활용하여 고품질 맞춤형 퇴·액비로 지원순환 혁신 사례로 경상북도가 주최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상품가치가 떨어

지는 저급과 참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참외 재배 농업인의 자조금 납부 의무화*, 참외 저급과 수매카드 발급 및 자조금 납부금액에 따라 포인트 부여, 수매량 소량 농가등을 위한 혜택 마련 등 저급과 수매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수매한 참외를 퇴·액비화 할

*의무자조금: 농업인들이 조성한 자조금

수 있는 비상품화 농신물지원화센터를 건립하여 불법으로 버려지는 참외를 줄여 침출수 등 환경오염 예방과 친환경 순환농업 실현 및 연간 300억 원의 가격지지 효과를 거두는 등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이병환 군수는 “성주참외 이미지 향상과 풍수 출하기



출하물량 조절로 농기는 재값 받고, 소비자는 고품질로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운동가인 심산 김창숙선생의 태, 역사, 문화관광지로 국내 생기가 바라보이는 칠봉산 기슭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설 예정이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인농어촌진흥지원, 신규농업 인현장실습, 귀농인정착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농촌사회 복지사업 일환으로 농업 관련 육·새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교육, 참별미소농업인대학, GAP교육 등 다양한 농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귀농귀촌 인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귀농귀촌인 전입인구가 120%

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주군은 이에 부응하여 2021년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인에게 이사비용 및 주거임대료 지원을 추진 중이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귀농희망자들에게 귀농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올해 초 귀농귀촌정보센터를 구축한 후 코로나19와 귀농귀촌 관심도 증가로 방문 및 전화 상당이 매일 10건 이상을 문의하는 정도로 예년에 비해 170%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에는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선정작목에 맞는 정착지 물색 등 실행단계를 진행하고, 농지와 주택구입, 영농계획수립 등 정착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케어한다. 작목 선정에서는 영농기술 습득 정도에 따라 노지작물과 시설채소 수입작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귀농지원사업으로 귀농농업 창업, 귀농인주택구입, 귀농창업, 귀농인주택구입, 귀농교육, 정보화교육, 강소농교



육·새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교육, 참별미소농업인대학, GAP교육 등 다양한 농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귀농귀촌 인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귀농귀촌인 전입인구가 120%

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주군은 이에 부응하여 2021년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인에게 이사비용 및 주거임대료 지원을 추진 중이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운동가인 심산 김창숙선생의 태, 역사, 문화관광지로 국내 생기가 바라보이는 칠봉산 기슭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설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출하물량 조절로 농기는 재값 받고, 소비자는 고품질로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jtbc 2

재미를 담다

jtbc 2 채널번호

푸른방송 8VSB 36-1, 디지털 44번 | IPTV KT olleh 39번, SK Btv 48번, LG U+ 40번 | SkyLife 45번

푸른신문 · 푸른방송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지역사랑 고트너

'나' 보다 '우리' 가 강하다 서로 도우며 힘들수록 함께해요!

음식관련

장기 · 화원



기타(타구)지역



리빙



기타



2020년 코로나도 겨우 추운 겨울

경제적, 신체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 어르신께

'김장나누기, 혹한기 방한용품지원'

위하여 겨울나기 캠페인을 실시하오니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덕愛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현물후원 김장, 등유, 전기장판, 각종 난방용품

현금후원 대구은행 031-12-002229
대구은행 505-10-213822-8
국민은행 807101-01-391523
농협 351-0262-5276-13
(예금주: 대덕재가노인돌봄센터)

일시 2020년 1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문의 053.625-9523, 9526

대구광역시자치구
사회복지법인 대덕재가노인돌봄센터

푸른신문은 독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푸른신문은 모두에게 열린 신문입니다.

소중하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나름의 가치와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푸른신문은 그 소중한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기자가 되어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를 신문에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 이야기(결혼, 출산, 자녀교육 등), 코로나 관련 이야기(코로나 체험기, 코로나 블루 극복 등), 창업(개업) 이야기, 추천하고 싶은 나만의 취미...

나의 이야기도 좋고 주변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원고를 써서 보내주세요 좋고 제보만 해 주셔도 환영합니다.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보내실 곳

편집국 (053) 572-6000 / E-mail p5726000@naver.com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3층 (우편번호 42640)

▶ 보내는 방법

- 헤드는 제한 없으나 원고를 써서 보내실 경우 1,000자 내외를 기본으로 합니다.
- 관련 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고, 연락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에 게재되는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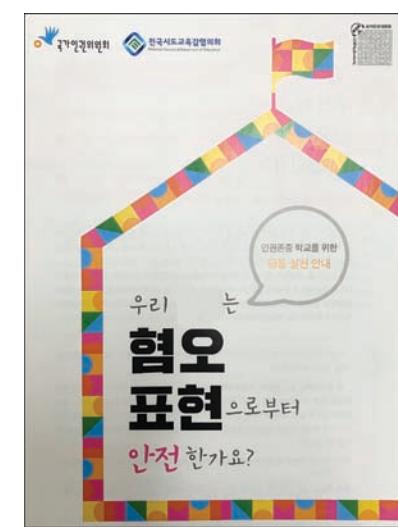


우리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얼마 전부터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리는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의 기사에는 댓글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특히나 당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를테면 성별, 장애, 종교 출신 등에 관한 모욕이나 비하는 그 사람이 겪어온 차별을 다시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어떻게 생겨나고 얼마나 위험하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혐오표현은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시작한다. 상대에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나이에 관한 급식총, 둘째 총, 성별 및 출신에 관한 김치녀, 짱개 등이 있다. 또한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말들도 있으며 문제는 이러한 표현들이 편견을 심화시키고 특정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시킨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차별을 부추기는 혐오표현도 있는데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을 주면 국가가 망한다'거나 혹은 "난민들 때문에 국민건강이 위험하다" 등이 있다.

혐오표현은 우선 개인에게 소외감을 주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힌다. 나아가 스스로를 뒷하여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게 하며 심하면 다니던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혐오표현이 넘쳐나는 사회는 자칫 그러한 사고를 당연시 여기게 하여 또 다른 편견을 넣고 차별을 부추기는 정체성을 위협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표현이다.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분명 있지만 평등한 관계와 서로



의 권리가 유지될 때만이 표현의 자유가 존중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원욱 객원기자

주거복지센터 지원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달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업무 협약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달서형 주거 권리 상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역시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설 예정인 '달서주거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 주택제공, 임수리 지원, 생활SOC사업 발굴 및 확대뿐만 아니라 달서구와 함께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지역공동 협업과제 발굴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달서구는 올해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상반기 월성2동에 주거복



지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쾌적하고 좀 더 안정된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 '2020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 선정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20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신중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회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선정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비대면 소비비대로 1월부터 8월까지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이 11.4% 늘어난 반면 달서구는 수거량과 재활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각각 270톤, 344톤이 감소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박 의원은 재활용폐기물 관련 규정 3회, 5분자유발언 1회, 의사진행발언 3회,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 2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

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수거량과 재활용률이 줄어들었지만 특히 재활용률에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재활용률은 대행업체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재활용률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지자체에도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 사업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되었을 때 바로 잡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길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박 의원은 재활용폐기물 관련 규정 3회, 5분자유발언 1회, 의사진행발언 3회,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 2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

성주군, '별고을 오랜가게' 2차 선정 발표

성주군은 지난달 25일 별고을 오랜가게 19개소를 선정했다. 성주의 이야기자원을 발굴하고 가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개업한지 30년 이상이고 대를 이어 전통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해 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발굴해 왔다. 이번에 2차로 선정된 19개소는 현장평가와 자문위원회 회의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성주군은 선정된 별고을 오랜가게에 대해서 인증 현판을 제작 부착하고, 주요 관광지를 엮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백년가게' 사업과 연계해 별고을 오랜가게가 백년가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와 여행관광책자 등에 오랜가게 명단을 실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2차로 선정된 '별고을 오랜가게'는 다음과 같다. △경북 이용소 △반도이용소 △홍도이용소 △한일떡방앗간 △현대 떡방앗간 △시장떡집 △신애떡방앗간 △청리떡방앗간 △가천건강원 △명령오토바이 △건강플러스자전거점(제일자전차) △코렉스자전거(경복자전차) △아세아스튜디오 △영보스튜디오 △성주지업자 △경북지업자 △성주인쇄소 △신성인쇄사무기 △새서울반점

자료제공: 성주군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단속 유예, DPF 부착, 조기폐차 지원도 확대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다만, 5등급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대구시는 처음 도입되는 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LED전광판 안내 문구 표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경

고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해 소유자들이 단속에 대비해 적절한 저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저공해 조치를 원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 car.or.kr)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도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자동차협회

회: (조기폐차) 1577-7121 ·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저공해 조치 방법에는 DPF부착과 조기폐차 2가지가 있다.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 10월말 기준 7만 6,261대로 지난해 대비 약 2만 3,000대가 감소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저공해 조치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80억 원 이상 증액해 5등급 차량을 대폭 줄여 나갈 예정이다.

성주현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운행제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대구시청>



푸른방송 뽀로로TV 월정액 첫달 무료+경품추첨

TV 애니메이션부터 다양한 콘텐츠까지 무제한으로 골라 볼 수 있는 푸른방송 <뽀로로TV 월정액>의 론칭을 기념하여 신규 가입 고객 모~두에게 첫달 무료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행운 가득한 산타 선물이 도착했어요!



기간 12월 1일 ~ 12월 31일

경품 첫달 무료 + 경품추첨(랜덤증정)

1. 2021년 뽀로로 달력 + 뽀로로 읊운드 사운드북
2. 2021년 뽀로로 달력 + 티요 저금통

*뽀로로TV 월정액 서비스는 푸른방송의 디지털케이블방송 상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푸른방송 홈페이지(www.gcs.co.kr)를 참고하세요.

KakaoTalk @푸른방송 www.gcs.co.kr 가입상담문의 053)551-2000



'다가온(ON)' 놀러오세요!

달서구,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오픈하우스 운영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달 28일 달서구건강기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 사업을 알리기 위해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은 '다문화가족이 서로 교류하며 밝게 ON하자', '다문화가족이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에 다가오는' 의미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 및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다가온(ON)' 공간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마술공연 등 불거리와 함께 이웃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달서구건강기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

오픈하우스는 사전 신청한 20가족 정도가 관람하고 체험하였으며, 참여가족들은 "세계 여러 나라 문화와 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며 "다문화를 경험 할 수 있고, 이 공간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태훈 구청장은 "다가온(ON)은 열린 공간이다. 이 공간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다문화·비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이용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내 고장 대구’ 얼마나 아시나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대구교육박물관(북구 산격동)의 주관으로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를 발간한다. 지역 학생들이 대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고 나아가 대구와 고대시대부터 역사, 문화, 경제 등 여러 부분에서 공유한 경상북도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움으로써 대구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발간되며 2021년 우선적으로 대구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펴낸다.

예전부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대구’를 주제로 한 책이 있었지만 최근의 지역 현황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대구·경북을 자세히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성은 대구와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으며 주제별로 지역에 있었던 사건과 인물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의 역사 및 자랑거리, 축제, 지역의 문화재 등을 다루었으며 각각 3~4개의 소단원으로 입체적이고 상세한 학습이 가능하다.

특히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서술 방식과 내용 관련 사진 및 일러스트를 풍부하게 첨부함으로써 객관적 사실 전달에 친숙 재미와 흥미를 읽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쉽고 유익하게 내용을 전달하려 했다. 나아가 일부 본문에서는 부연 설명으로 특별 텍스트를 추가하고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돋우기 위해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의 학생들에

지식플러스’ 대구·경북 편, ‘한 걸음 더 역사 속으로’란을 두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각 단원의 내용과 관계있는 토론 주제를 제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친구들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체험 위주의 활동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교실 밖 대구 역사체험’ 부분에서 본문에 나온 현장을 체험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내년 초 발간을 목표로 현재 대구교육박물관 누리집에서 발간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담은 편집본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오류나 왜곡된 부분에 대한 수정 및 제안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발간으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의 학생들에

이원욱 객원기자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서비스품질·사회공헌 우수기관 인증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은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인권경영·서비스품질·사회공헌 부문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주어지는

인증 제도로,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인권경영시스템에 대한 적절성, 효과성 등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획득했다. 또 주민을 위한 고품격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립기술표준원 인증기관인 한국서비스진흥협회로부터 2회 연속 서비스품질 우수기관으

로 선정됐다. 아울러,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0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심사에서 최종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강순환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고객 행복 달성을 이루는 목표 아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시설관리공단〉



상인2동 치매예방용품 지원사업 추진

달서구 상인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조은혜)는 상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수)와 함께 지난달 26일 저소득 어르신 30세대에 치매예방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무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의력·집중력 향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실버 용접보구슬퍼즐, 목재 슬라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다양한 및 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하고 살기좋은 상인2동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상인2동 행정복지센터〉

달성군, 공공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정보 파악 용이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관내 공공화장실 24개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공중화장실은 주로 주

소가 없는 등산로나 공원 등에 배치되어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했으며, 긴급 상황 등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군민 안전 및 생활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형 건물번호판 대신 공공시설의 기능에 맞춰 시각적으로 잘 띠고 주위 미관을 고려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김문오 군수는 “앞으로 공공화장실뿐만 아니라 주소가 없는 공공시설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군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0년 대구시정 베스트 10’ 시민 투표로 결정!

1~15일, 대구시 홈페이지 온라인투표, 길거리투표도 동시 진행

대구시는 2020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 중 대구를 빛낸 우수시책인 ‘2020년 대구시정 베스트 10’을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대구시정 베스트 10’은 민선7기 시정 슬로건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적극 구현하고 시민이 시장인 참여의 도시 건설을 위해 올해 대구를 빛낸 10개 우수시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성과평가위원회, 대구경북연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시정발전 기여도, 대외적 파급성, 성과 및 기대효과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한 15개의 우수시책에 대해 온라인투표와 길거리 투표(오프라인) 등 시민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온라인투표는 1일부터 15일 까지 대구시 홈페이지 토크대구 투표란(<https://talk.daegu.go.kr>)을 통해 대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토크대구’를 검색해 접속한 다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투표에 응하면 된다. 투표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00명에게 5천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길거리투표는 코로나19 방

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9일, 10일 2일간 유동인구가 많은 5곳을 순회하여 실시한다.

투표는 시민들이 올 한해 가장 공감하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선택해 자유롭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정 베스트 10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의 참여로 선정

된다”며 “대구를 자랑할 수 있는 우수한 시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와 길거리투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대구강서소방서 2020 최우수 의용소방대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들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다. 〈자료제공:강서소방서〉

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재해는 대설, 강풍, 지진,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며, 주택이나 온실, 상가·공장이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저소득층 경우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등 재해 발생 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

자연재해 피해보상 미리 대비하세요

대구시,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대구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장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입은 재산피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 받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보험가입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소상공인 상가·공장

자원을 아끼고 나만의 작품을 갖는 ‘업사이클링’의 즐거움

얼마 전 당근마켓(온라인 중고 직거래 장터)에서 무료 나눔으로 받은 원목 선반을 손질해서 화분 전용 선반을 만들었다. 시판되는 선반을 구입해도 되지만 맘에 쏙 드는 제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다 무엇보다 업사이클링으로 갖고 싶었다.

재활용(recycling)은 익숙한 용어인데 업사이클링(upcycling)은 또 뭐란 말이니?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이 업사이클링이다. 한 청바지도 멋진 빈티지 가방을 만들거나, 버려진 현수막을 이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드는 것 등이 모두 업사이클링의 예다. 우리말로는 ‘재활용’이라고 한다.

업사이클링은 대부분 DIY(DO It Yourself)를 수반하기 때문에 좀 서툴고 시간이 걸려도 스스

로 해 냈다는 즐거움이 대단하다. 기자도 넓은 선반을 업사이클링 하느라 힘은 들었지만(합판을 떼어내고 폐인트 칠하고) 맘에 쏙 드는 나만의 작품을 갖게 되었다. 그냥 돈 주고 샀더라면 이런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업사이클링은 패션이나, 가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제로웨이스트, 친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이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라는 의미에서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다. 업사이클링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시대적 요구와 트렌드에 부흥하는 땅 맞는 소비 패턴이자 환경운동이다. 돈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는 업사이클링,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이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잘 보시라. 쓰레기 가운데서 멋진 작품으로 변신할 테니.



그럼 당신도 지구를 살리는 환경운동가가 되는 것이다. 〈자료제공:서순옥 객원기자〉

내 고장 문화유적 탐방

144. 무덤에서 나온 400년 전 편지 172매, 혼풍과씨 언간(2)

1) 프롤로그

지난번에 이어 ‘혼풍과씨 언간’에 대해 계속 알아보기로 하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총 172매 중 과주가 부인 진주 하씨에게 보낸 편지가 96매, 부인이 과주에게 보낸 것이 6매, 출가한 딸들이 어머니께 쓴 것이 42매, 기타 출가한 딸들이 시누이에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안사돈 간에 주고받은 편지 등이다. 400년 전 편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몇 장의 편지를 한 번 살펴보자.

2) 3년만 한 집에서 참아보소

○ 이창이가 서거워한다고 해서 제각기 집에서 내보낼 수가 있겠는가. 자네에게 너무 많이 서럽게 하지 아니하면 3년은 한 집에서 살고, 3년 후에 제각기 나가게 하고자 하니 자네가 짐작하여 기별소, 친아버지와 친자식 사이에도 편지 않은 일이 있거늘, 하물며 의붓어버이와 한 집에 살며 어찌 일마다 좋게야 생활할꼬...

○ 요사이 무슨 일로 집안이 조용한 때가 없는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네의 마른 성질에 어찌 견디는고. 자네가 “같이 살기 편치 않다”고 말하면 다음 달로 제각기 들어갈 집을 짓고 제각각 살기로 하세. 멀찍이 집을 지어 나가든지, 같이 살 것 같으면 문을 제각기 내고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할것이니 자네가 짐작하여 기별소.

이는 과주가 부인 하씨에게 보낸 편지로 과주의 후처 하씨와 전처 소생인 장남 과이창이 서로 불화했음을 알 수 있는 편지다. 반면 둘 사이의 관계가 정말 그랬을까 의심이 가게 만드는 편지도 있다. 다음은 과이창이 하씨에게 보낸 편지다. 문가 이후 어느 때인가부터 다시 사이가 좋아진 것일까?

밤사이 기후 어庇하음신고. 사모 망국하옵니다. 자식은 무사히 왔습니다. 초계 동생의 살풀이 날은 이 달 스무아 헤트날도 극히 좋고 3월 초하룻날도 좋다하니 두 달 중에서 가리어 하옵소서. 아무쪼록 기후 평안하음심을 밤낮으로 비웁니다. 이월 스무엇생날, 아들이창 사원.

3) 큰마마·작은마마

‘혼풍과씨 언간’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다. 각종 질병에 대한 이야기다. 천연두·흉역 같은 돌림병, 고열 같은 시절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병, 종기, 심(학질), 가슴앓이(폐병) 등이다.

○ 역신은 어떠하오며 시기병은 없사옵니까. 이곳은 사방에 걸린 것이 역질과 시기병이오니 무사히 벗어나기 어려울 듯합니다. [출가한 딸이 하씨에게]

○ 듣자오니 대임이가 수리비 역신을 한다고 하니 놀라 움이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머님 편지에 두 아기가 다 좋았다고 하니 하도 기뻐 하늘에도 오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는 얼굴이 얹었고 아니 얹었는지 자세히 편지에 주십시오. [출가한 딸이 하씨에게]

○ 아버님이 편지에서 “덩냥이의 머리에 난 종기 악을 하여 주었는데, 덩냥이가 거슬러 못 바른다”하여 놔두었다 하니, 거스르나마나 부디 악을 발라서 빨리 낫게 하소. 여기에 와 있어도 그 아이를 한 때도 잊지 못한다네. 부디 빨리 아물게 하소. [과주가 하씨에게]

○ 대임이의 학실에 소주를 먹으면 좋다하니 일맞은 소용에 꿀을 빙 증지만 먼저 넣고 꿀 위에 소주를 가득 넣은 후 김이 나지 않도록 단단히 싸서 통하여 보내소. 꺽주가 하씨에게

4) 임란 후 혼란스런 사회상

임란 직후 조선은 오랫동안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과주가 살던 혼풍 일원도 예외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과주는 여러 통의 편지를 통해 부인에게 신변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경네·경네가 절대로 밖에 나가 사내아이들하고 한 데서 못 놀게 하소...당직도 금술이를 자기 집으로 보내지 말고 늘 집에서 자게 하소. 내가 있으면 무단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절대로 혼자 자지 마소. 조심조심하여 계시오. 앞 사립문은 늘 닫아 떠나고...뒷간도 움 뒤에 만들어서 보고 절대로 밖의 뒷간에 나와 보지 마소.

5)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과주가 살던 17세기 초, 한글이 조선 사회에 뿌리를 내렸던 모양이다. ‘혼풍과씨 언간’을 통해 당시 사대부가 여성들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교육하는 풍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주가 처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십사 장모에게 부탁하는 편지와 부인 하씨에게 보낸 편지다. 언문은 한글을 양접자 부르는 표현이다.

○ ...아우의 자식도 둘이 거기에 가 있을 때 언문을 가르쳐 보내시옵소서. 수고로우시겠으나 언문을 가르치옵소서. 말씀 드리기 송구스러워하다가 아뢰옵니다. [과주가 장모에게]

○ ...작은 아기는 언문을 채히 배워서 내게 유무를 빨리 하라 하소...기운데 아기 언문을 채히 배웠다가 내게 보이라 하소. 옛째 아기도 이제는 채히 온전하여 있을것이니 언문을 외워 있다가 보이라 이르소. 모쪼록 아이들 데리고 편히 있으소. [과주가 하씨에게]

○ 딸을 또 낳아도 마음에 서운히 여기지 마소
재취로 들어온 하씨 부인은 아들보다 딸을 먼저 낳았던 모양이다. 과주는 또 다시 출신을 앞둔 부인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낸다. 산기가 들면 기별을 하라고, 약을 준비해서 보냈다고, 딸이라도 괜찮으니 몸조리 잘하라고

...이 달이 다 저물어 가되 지금 아기를 낳지 아니하니 정녕 달을 그릇 헤아렸는가 하네...중이에 쌈 약은 내가 가서 달여 쓸 것이다 내가 아니 가서는 자지지 마소. 꿀과

송 은 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179@hanmail.net



목요단상(木曜斷想)

대학, 참된 배움의 시작

시험을 치르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우여곡절 끝에 올해 수능시험에 치러진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끊끔하게 수능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올해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여느 해와는 다른 감정으로 대학에 입학할 것으로 짐작된다. 시련이 깊었던 만큼 더 단단해진 의지로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대학을 최고학부라 말하며 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한다.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은 배움의 과정에 있어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진정한 의미의 배움이 대학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교수로부터, 친구로부터, 또 다른 무언가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대학에서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해서 내 의지로 모든 상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배움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이다.

또 대학은 기술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인격을 가르치는 곳이며 건강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곳이다. 인격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은 지식은 될지언정 올바른 지혜가 되지 못한다.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물론 풍부한 교양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 학문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양은 전공의 깊이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 대학교육의 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027년이 되면 대학 캠퍼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미 대학 수업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변화였다는 것이 중본이다. 코로나가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만든 것뿐이다. 다소 급하게 진행된 온라인 강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며지않아 모두 해소될 것이며, 형식은 온라인 강의지만 내용은 대면 강의와 다를 바 없는 강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변화에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대학생들을 통해 시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해 적성에 맞는 대학, 내가 잘 할 수 있는 전공을 찾아 대학을 선택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변경식 기자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균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9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137만 원, 부부가구는 2019년 1월 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기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되며,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간액, 소득역전방지 간액 등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 요건 충족 시 산정된 급여액이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구 분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기입 -본인의 연금수급개시령(61~65세) 도달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70%)
연금액	-기입기간, 기입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산정 (2019년 4월~2020년 3월)	-기입기간, 기입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산정 (2019년 4월~2020년 3월)
재 원	-국민연금 기금	-조세(국비+지방비)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길을 물고 닦는다 자기하기 나름이다

한대학 연구기관에서 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배우자라고 하였듯이, 꼭 연구조사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개인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사람이 만일 30살에 결혼을 한다고 치고 평균 수명 연령이 80세라고 하면 50년 동안 같이 지내는 사람이 배우자이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언급했다. 반세기를 함께 살면서 매일 보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라면 그 사람의 삶이 만족스러울리 만무하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정신연령

다.

집안이 뭉시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 머리를 봉양하였고 떨어진 옷과 해진 신발을 걸치고 다니니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평강왕은 어린 딸이 많이 울어 울기만 하면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자

라면 틀림없이 사대부의 아내가 못 되고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가야 되겠다.”라고 놀렸다.

공주의 나이가 16세가 되자 왕이 딸을 사대부의 가문에 시집보내려 하자 공주가 말하기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제와서



구옹희 건양대학교 교수





우리 집 인성교육의 시작 ‘밥상머리교육’

실력뿐 아니라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대구 시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및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해 ‘밥상머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예절교육이라 정의되는 밥상머리 교육은 최근 가정 내 소통 부재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막을 내렸지만 가족 간 소통을 소재로 한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을 정도이다. 일부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선의 선비를 키운 교육이 바로 밥상머리교육이라고도 말한다.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며 시작된다. 음식을 일단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유대감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자연스러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처음 시작은 가족들과 하루의 일과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에 공감해주며 차차 기본적인 예절 및 인성교육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좋다.

밥상머리 교육이 잘 실천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몇 가지 지침이 있다. 먼저 부정적인 말보다는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다. 공감은 마음을 열게 하고 반대로 비난이나 질책 등은 마음을 단게 만들며 조언

이나 교육 내용을 억압이나 총고로만 생각하게 만든다. 나아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중간에 끊지 않는다. 자녀도 나름의 처한 상황이 있고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있으므로 의견을 존중해 주고 질문에는 충실히 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가족의 단합된 힘을 느껴보는 것도 좋으며 결정해야 할 일이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결해나가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휴대폰은 소지하지 않고 식사에 참여

하며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친 친히 먹는다. 만약 각자의 일이 바빠 모이기 힘들다면 ‘가족 식사의 날’을 따로 정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밥상머리교육은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역할을 하여 근본적인 학교폭력의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식사를 통해 그 속에서 가족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가족의 사랑도 키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

*밥상머리: 밥상의 한쪽 언저리나 그 가까이 이원욱 객원기자

대진고 정미애 ‘교사의 창의적 수업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중등부문에서 영광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 공모전은 일회성의 수업 공개나 수업 연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는 교사의 수업 이야기와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성찰이 반영된 창의적 수업 사례를 발굴하는 대회다.

정미애 교사는 대회에 공모한 수업 사례는 음악과 블렌디드러닝 수업 설계 자료이다. 정교사는 1학기의 ‘원격 학습을 위한 수업 콘텐츠(유튜브 채널: 음악샘 miae)’와 ‘온라인 상에서 실시한 수업 사례’, 2학기의 ‘온-오프라인 수업 상황에서 실시한 칼립바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워크숍)는 지난달 28일 실시간 온라인 방식(ZOOM 회의실)으로 진행됐다.

정교사는 전국 최초의 음악과 구글 트레이너(Google Certified Educator Trainer) 이자, 대구시교육청의 블렌디드러닝 전문학습공동체 회장으로 현재 전국의 학교 및 교육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정교사는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러운 학교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수업 방식의 변화와 수업 설계에 작거나 마나의 사례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료제공:대진고등학교>

달성교육지원청, 교육방식의 변화에 대한 비대면 직장교육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은 지난달 3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방식의 변화에 대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원격수업 방식의 학교 교육 변화’라는 주제로 김주연 강사(서동중학교 교사)

가 IB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과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전달하는 강의로 영상 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영상 교육으로 실시했다.

<자료제공:달성교육지원청>



새본리중학교

15회 금융공모전 우수학교 선정

금융공모전 우수학교상, 포스터 부문 장려상 3명 수상

새본리중학교(교장 류정하)는 10월 30일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개 금융협회가 후원하는 '제15회 금융공모전'에서 우수학교상(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2학년 박혜진, 3학년 김병윤, 이여준 학생이 포스터 부문 장려상인 금융협회장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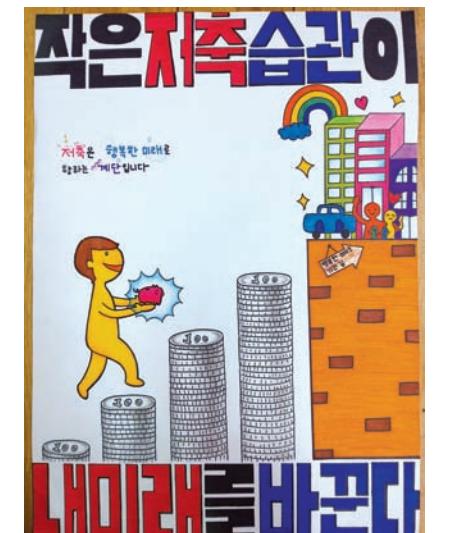
새본리중학교는 학생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금융교

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글짓기, 포스터, 만화, UCC 등의 작품을 전교생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중 글짓기 38편, 만화3편, 포스터 16편, UCC 1편에 이르는 총 58편의 다양한 작품을 제출했다.

김병윤 학생(새본리중 3학년)은 '당신은 돈을 심고 있나요'에서 저축과 나무를 연결한 이미지를 통해

류정하 교장은 "평소 금융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보여주었다. 이여준 학생(새본리중 3학년)

도움을 주도록 지도하고 있다. 청



소년 금융교육은 미래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금융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새본리중학교〉

계명대-대구시설공단 '미술전시 활성화' 위해 손잡아

계명대 미술대학은 지난달 26일 대구시설공단과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2·28기념중앙공원과 같은 대구 도심 내 공원에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의 작품이 정기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작품을 배

너에 프린트하고, 공원 내 가로등에 프린트된 작품을 걸어 전시하는 방식이다. 누구에게

나, 언제나 열린, '24시간 오픈' 전시회이다. '위드 코로나 (WITH COVID-19)' 시대를 맞아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졌지만, 정서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개방형' 공간에서 열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회로 찾은 것이다.

공원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는 현시대에 맞는 온라인 미술관과 미술관 경험의 중간



최근부터 대구시설공단 홍동건 주임, 문건일 대리, 최두호 차장, 이광기 소장, 계명대 김운희 미술대학장, 정태숙 회화과 학과장, 나유리 공예디자인과 학과장, 이정호 미술대학 행정팀장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계명대학교〉



달서구청장배 청소년 풋살대회 영남중B 우승, 용산중A 준우승

달서구청장배 청소년 풋살대회가 지난 달 28일 월배축구장 풋살코트에서 열려 영남중B팀이 우승, 용산중A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3위는 효성중A, 4위는 대건중A팀에게 돌아갔다.

겨울이 들어서는 11월 마지막 토요일, 참가 선수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땀을 흘리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우정을 다졌다. 달서구 관내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달서구 체육회가 주관하고 달서구와 달서구의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17팀 170명이 참가했다.

개인상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선수상 최재빈(영남중), 우수선수상 노광혁(용산중), GK상 윤찬영(효성), 감독상 오우섭(영남중)

변점식 기자



아기사진과 축하메시지 담은 출생축하카드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12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군민에게 '의자형 출생 축하 카드'를 신규 제작·전달한다.

의자형 출생 축하 카드는 태어난 아기 사진을 넣을 수 있고, 부모와 아기 이름, 사랑스러운 아기와 부모님의 행복을 군민과 함께 기원하는 축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출생은 한 가정뿐 아니라 달성군의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출생가정에 큰 감동을 함께 전하고자 출생 축하 카드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양육, 가족 친화적 정책들을 다각도로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달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성군청〉

▶

코로나19에 맞서는 '학교급식'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는 법적으로 반드시 써야만 하는 필수품이 되었다. 특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교실이라는 한 공간에 다수 모여 있는 학교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된 유일한 시간이다. 바로 한 시간 남짓한 급식시간. 코로나에 맞서서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지만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급식은 시행 여부부터 논의 대상

이었다. 급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치침이 명확해져서 일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가더니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급식 전 전교생 손 씻기를 의무화하고 장소도 전교생이 모이는 급식실이 아닌 교실 급식을 하도록 한 것 등이다. 물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일절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도 포함되었다.

코로나는 급식시간의 풍경도 바꾸어놓았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급식시간에 음악을 틀어주는 학교가 생겨난 것이다. 학교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통해 대화가 금지되면서 다소 위축되고 따뜻해진 분위

기회를 전환하고 동시에 음악이 나오기 직전 보건교사의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아이들의 면역력을 기울 수 있는 하루 한끼 식사는 더욱 중요해졌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으면서 맛에 관한 만족감까지 줄 수 있는 급식은 학교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어야하는 이유다.

이원욱 객원기자

학생들을 위한 수능격려 초콜릿이 전달됐다. 이날 3교시에는

3학년 학생회장 정재현 학생은 '코로나19와 함께 수능을 맞아 부담감과 긴장감이 100에 달하는 저희들에게 여려가지 선물과 함께 응원의 글귀가 적힌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부담감을 자신감으로 바꾸어 수능에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경원고등학교〉

우리동네 주석주석, 코로나로 소식들이 살아 있는 곳!

지역민을 위한 푸른방송 ch1

우리동네
우리방송
GCS 푸른방송

제보 및
가입 A/S

551-2000



야심차게 준비한 창작뮤지컬 ‘월곡’ 첫 선

12월 5일(토) 오후 3시/7시,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웃는얼굴아트센터 첫 번째 자체 제작 뮤지컬, 내년 8월 공개 예정
월곡역사공원의 주인공, 의병장 월곡 우배선을 조명하다

(재) 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웃는얼굴아트센터는 DSAC 프로덕션 사업으로 달 서구만의 독창적인 문화콘텐츠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임진왜란 당시 현재 달서구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이자 ‘월곡 역사공원’의 주인공인 월곡 우배선으로 한 정작 뮤지컬 ‘월곡’을 제작한다.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첫 자체 제작 뮤지컬인 ‘월곡’은 2년의 기간을 두고 제작할 예정이며 5일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리딩극 형태로 첫선을 보이고 완성된 작품은 2021년 8월경에 공개될 예정이다.

월곡 우배선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대구지역을 근거지로 의병을 일으켜 선무 원종공신에 책록된 인물이다. 이번 뮤지컬은 의병장 우배선의 업적을 조명하고 의병들의 애국정신과 애환을 담은 휴먼드라

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역사적 인물과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며 혁이, 월이 등 가장 인물을 통해 극을 풀어나간다. 흥미롭고 뻔한 전개의 스토리라 인과 대중적인 뮤지컬 넘버로 이제껏 문화계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우배선 장군의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이려 한다.

지역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팀과 캐스트

향후 달서구를 대표하는 콘텐츠 제작인 만큼 제작진 구성에도 큰 공을 들였다. 제작총괄은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숙 관장이 맡고, 연출 손현석, 극본 손수민, 작곡 진주백, 음악감독 구지영, 의상디자인 이수진, 제작감독 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기획 허정무 등 각 분야에서 지역 최고의 실력을 가진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로 구성됐다. 이들은 ‘애산’, ‘생태취페리’, ‘북성로 이종집’, ‘이상한 나라 안이수’ 등 다양한 창작뮤지컬로 대구 뮤지컬계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의 라인업 또한 기대를 모은다. 뮤지컬 ‘담배가게’에 ‘아가씨’, ‘비건하늘’, ‘가얏고’ 등 다수의 지역 제작 뮤지컬에 주역으로 출연한 뮤지컬 배우 손현진이 우배선 역을 맡았다. 작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을 재개관 기념 뮤지컬 ‘깨어나는 전설 바탕기’에서 데어 역을 맡았던 전수진 배우가 월이 역을, 뮤지컬 ‘기적소리’, ‘생태취페리’, ‘마이선’ 등에 출연하여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을 선보인 뮤지컬 배우 박명선이 혁이 역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뮤지컬 ‘북성로 이종집’의 배우 이호영이 임진왜란 선봉에 섰던 적이



없는 창작뮤지컬 ‘월곡’을 대구 달서구의 독창적인 문화 브랜드로 만들고자 한다. 뮤지컬이 상업예술인 만큼 역사적 교훈은 단되 모든 관객층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작품의 대중성을 강화했다. 지역 공립극장 제작물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달서문화재단〉

‘한올 한올’ 정성 가득 아름다운 손뜨개

오래 전 인기 드라마에서 배우 현빈의 유명한 대사 ‘한 땀 한 땀’은 그 이후 다양한 곳에서 패러디 되면서 정성 들인 수작업의 대명사가 되었다. 한 땀 한 땀 대신 한 올 한 올 뜨개질의 매력에 끌 빠진 사람들 이 있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운 집콕생활로 참 좋은 아이템이라 소개한다.

대구에서 가장 큰 손뜨개 공방인 ‘한올 손뜨개’는 지하철 1호선 종양로역 3번 출구에서 가깝다. 60평이 나 되는 넓은 공간에 온갖 종류의 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공방 주인(윤병숙) 손씨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서울에서도 찾아온단다. 명인에 가까운 솔씨다.

공방에 걸려있는 작품(그냥 웃이 아니고 작품수준이다)을 보면 도저히 손으로 뜨았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워 저절로 입이

떡 벌어진다. 손뜨개는 초등학교 때 목도리 하나 때 본 게 전부인 기자의 눈엔 그야말로 신세계로 보였다. 이게 정말 사람 손으로 뜯어 맞느냐고 물어보니 초보자들도 뜯 수 있다고 한다. 손뜨개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색깔 배합이나 이음새 등 어려운 부분은 해결사인 공방의 주인이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어려움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웃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주면 한 개를 뜯 수 있다. 한 회원은 철곡 외관에서 기차를 타고 공방에 나오신다고 했다. 호자 침에서 해도 되지만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곧바로 해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꼭 이곳에 나와서 작업을 하신다고 했 다. 뜨개질 마니아들의 사랑방인 셈



이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는 공방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지만 그래도 기자가 찾아갔을 때 예닐곱 명이 마스크 꼼꼼하게 쓰고 띠엄띄엄 앉아서 각자의 뜨개질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눈과 손의 협응 작업이기 때문에 치매예방에도 좋고 작업하다 보면 시간도 정말 잘 지나는 손뜨개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서순옥 객원기자

단 한 번의 ‘온라인 라이브’ 공연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5일 밤 10시, 전 세계에 온라인 생중계

대구문화예술회관은 특별기획공연으로 대구시립무용단의 제78회 정기공연 ‘무엇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가’를 5일 밤 10시 전 세계에 온라인 생중계로 선보인다.

대구시립무용단의 온라인콘텐츠 브랜드인 ‘대구시립무용단 라이브(DCDC Live)’의 첫 작품인 ‘무엇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가’는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의 무대부터 로비, 반입구까지 공연장을 연장 전체를 배경으로 춤추는 내용을 담아낸다.

대구문화방송(MBC)이 촬영과 온라인 생중계의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지며 제작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송 프로그램화할 예정이다.

팬데믹 초기에 일었던 온라인 공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점차 식어가면서 관객들은 생동감 넘치는 공연 현장을 더욱 간접히 원하게 됐다. 이미지의 재구성이 특성인 영상은 현장성이 강조되는 무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한계를 인정하

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상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비대면 공연들이 무대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중계를 통해 영상과 무대공연의 접점을 찾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라는 김성용 예술감독의 의도처럼 대구시립무용단의 이번 작품은 장소, 무용수, 카메라가 마치 한 몸의 부속처럼 미리 약속된 움직임을 완벽하게 전달하면서 전 세계 화면의 관객들을 실시간으로 팔공홀로 불러내게 된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팬데믹 시대에 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에서부터 작품은 이미 시작됐다. 관객을 만나기 위해, 무대에 서기 위해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했던 무용수들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모든 관객을 만나다. ‘춤으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춤의 역할이고 존재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카메라는 가감 없이



제78회 정기 공연 리허설

전달한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는 무용수들이 춤을 추듯 모든 이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유럽과 미주지역 관람 시간을 고려해 공연 시간을 밤 10시로 했으며 라이브 공연 이후 다시보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비상임단원 모집

9~15일 원서 접수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음의 수채화) (2016 KBS 창작 동요대회 대상, 서숙선 곡), 개인악보를 지원해야 하고, 꼭 안아 줄래요 (2015 KBS 하반기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구지역 거주 학생

이면 응시 가능하며, 흄스쿨링 학생은 최종학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형방법은 실기전형 후 필 요시 면접전형을 이어서 진행

하며 초등학생은 지정곡 중 한 곡을 선택할 수 있다.

▶초등학생 실기 지정곡 아빠의 자리 (오히설 곡), 내마

시창은 계명창으로 부르면 된

다. 실기전형 시 응시자 전원 개인악보를 지원해야 하고,

모든 곡은 최초 작곡된 원조 (Original Key)로만 연주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2월 9일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실기

전형은 12월 19일 오후 1시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진행한다.

광고문의 053.572-6000

잔디광장 휴식월제 시행

2021년 5월 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코오롱야외음악당(두류공원 내)은 잔디월동 및 밤아시기를 맞아 내년 5월 4일까지 잔디광장 휴식월제를 시행한다.

대구를 대표하는 야외공연장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코오롱야외음악당은 올해에도 시민들에게 더 푸르고 쾌적한 잔디광장을 제공코자 산책로를 포함해 잔디광장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잔디는 새싹이 틀 무렵의 관리가 한 해의 농사를 좌우하는 생육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득이 이런 방법을 도입하게 됐다. 휴식월제 기간에 잔디광장에는 집중적으로 비료주기와 병충해방제·제초작업·관수작업 등이 진행된다.

김선호 코오롱야외음악당팀장은 “일부 훼손된 잔디광장을 집중 관리해 보다 편안하게 문화·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 후 시민들을 다시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iNet-TV는
푸른방송과 함께합니다.

국민형 63-1 디지털 III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건강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자본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6월 말까지 청년(2019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2020.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빙우호)는 8월 19일(수)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

선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

* 따라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 P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는 2.12% 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년 기록상 소득 증가율: 11.04%(18년 9.13%), '20년 재산 증가율 6.57%('19년 8.89%)

재산세 세제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음.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이 높였다.

소득세법 상 한시적으로 비과세('14~'18)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 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

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임대등록(4년) 시 인상분의 40%, 장기 임대등록(8년) 시 인상분의 80% 경감됐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천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 6,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 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건강보험공단▶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 정

중풍, 꾸준한 재활운동과 치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5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중풍(中風)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는 병명으로 뇌출증(stroke)라고도 불린다. 뇌기능 상실이 발생하여 반신마비, 무감각증,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중풍치료를 위해서는 발병 후 3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여 뇌손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활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손상 받은 뇌세포는 원상태로 회복될 수는 있지만, 그 주변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든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르며 이 기전은 3~6개월 사이에 가장 활발하다.

재활을 빨리 시작하면 좋은 이유는 근육과 관절 때문이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약해진다. 하루 운동을 하지 않으면 3~5%의 근력이 사라진다. 1주일이면 갖고 있던 근육이 20~30%가 빠지게 된다. 마비된 쪽의 근육은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초기 침상 안정이 길어지면 이후 재활치료를 받을 때 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움직이지 않는 관절은 구축되고, 한번 구축된 관절은 가동범위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비되지 않은 쪽의 손을 이용하여 어깨, 손목, 손가락, 무릎 등 관절을 스트레칭 하는 것이 좋다. 너무 강하게 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움직이려고 시도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재활운동을 하다보면 약해진 부위에 통증이 쉽게 생기기도 하고, 약해진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 반대로 진족(마비가 되지 않은 쪽)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한방 치료가 큰 도움이 된다. 침, 전침, 뜸 등의 치료와 체질과 증상에 맞는 처방을 통해 기혈순환을시키고 단축된 근육은 풀고 약해진 근육은 강화시키면 운동을 통해 생기는 통증도 줄이고 운동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가령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어제와 오늘은 미세한 차이로 인해 호전되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꾸준한 치료와 운동을 통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치료를 도와주는 사람의 힘에 의지해 재활을 하는 것 보다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근육의 힘을 더욱 키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풍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다면 치료를 하고, 흡연과 음주를 피해야 한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좁히게 되므로 꼭 끊어야 한다. 기름진 식사를 피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이상지질혈증을 개선하고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재활 기간이 길어지면 쉽게 포기하고 싶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들기 쉽다. 집안에만 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등 기분전환을 방법을 찾아두면 좋다.

대구시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한의원 ☎ 053-564-0401

통합재가 서비스 고령화 사회 대비한 장기요양 서비스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 고위험의 어르신 보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년 8월부터 전국 총 137개소의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해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협업으로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 [주·야간보호+방문요양(복욕)]과 가정방문통합형[방문요양(복욕)+방문간호]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계획대로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뤄지는지 점검(사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 계획 수립한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여러 질병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이 매월 요양 목표를 점검하여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과정과 함께, 간호사의 전문성과 반복적인 예방관리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게 하고,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의 개입으로 병원 외래진료가 용이하도록 지역자원(장애인콜택시)을 연계해 어르신이 편리하고 안전한 재가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12월 7일 ~ 13일

재미로 보는 놀(여)

36년생 순리를 따라서 처신하면 무난하게 모든 일이 해결된다. 48년생 빙지 못한 재물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다. 60년생 사막에서 보석을 즐고 사막에서 물을 만나니 황재수가 있다. 72년생 자신의 주변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명예가 높아지게 된다. 84년생 좋은 일이 생긴다. 96년생 자만하면 인심을 잃는다.

37년생 집안에 경사가 생기게 되고 많은 친척들을 만날 일이 생긴다. 49년생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기쁜 일이 있으리라. 61년생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하식 원이 생기게 되니 경사다. 73년생 본인의 뜻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85년생 누군가와 경쟁할 일이 생긴다. 97년생 비쁘게 움직이는 듯한 이들이 생긴다.

38년생 소식이 끊어졌던 사람과 재회를 하게 되는 경사가 있다. 50년생 어떤 사람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이 변한다. 62년생 하리를 디칠까 염려되니 매사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74년생 원행을 하면 예상치 못한 기쁜 일이 생기니 이를 잘 활용하라. 86년생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98년생 고생은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나 없다.

39년생 자녀로 인해서 경사가 생기니 집안의 웃음이 담장을 넘는다. 51년생 재물이 들어오고 명예가 높아진다. 63년생 본인의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라. 그리하면 귀인이 도움이 있으리라. 75년생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순리대로 일을 진행하라. 87년생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기면 이루어진다.

40년생 재양은 사라지고 복이 찾아오니 저세만 잘한다면 즐거움이 있으리라. 52년생 김투를 쓰게 되거나 명예가 올라갈 일이 생기게 된다. 64년생 두 사람의 뜻이 하나로 합쳐지니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76년생 나의 능력을 타인에게 보여줄 기회이니 이를 잘 활용하라. 88년생 믿었던 도끼에 밭등이 찍히는 꼴이니 사람을 믿지 말라.

41년생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후면 예상치 못한 화가 미치게 된다. 53년생 하극상이 생길 수 있으니 이웃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65년생 병마가 찾아올까 두려워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체력을 강화해라. 77년생 본분에 충실히 무탈하지만 세운은 일을 벌이면 팔파이다. 89년생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니 좋은 일이 생긴다.

42년생 감언이설을 하며 다가오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54년생 주색을 가까이하면 펼히 구설에 오르거나 주의하라. 66년생 문서를 짊을 일이 생기는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78년생 명예를 얻기는 하겠지만 불필요한 재물이 나갈까 걱정이다. 90년생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인정받게 된다.

43년생 재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관리를 철해야 할 필요가 있다. 55년생 이 씨, 송 씨 성을 가진 사람이 귀인이니 저들과 힘을 합쳐라. 67년생 많은 사람들 중에 선인과 악인을 구별해 줄 아는 혜인을 갖추어라. 79년생 십 년 공부 끝에 깨달음을 얻으니 온 세상을 얻은 듯하다. 91년생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다.

44년생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56년생 얼마 되지도 않는 작은 이익에 암시를 팔지 말라. 68년생 하늘은 스스로 듣는지를 듣는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작게나마 이룬다. 80년생 신속으로 물고기를 염려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다. 현실을 적시하라. 92년생 끝데 없는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후회가 뒤따른다.

45년생 갑자기 이사를 하거나 원행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 57년생 남쪽에서 귀인이 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니 꼭 불어야 한다. 69년생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낭성을 입을 수 있다. 81년생 주변사람들에게 재물을 쓰는 것을 아끼지 말라. 훗날에 더 크게 돌아온다. 93년생 분수를 지키면 무난하지만 욕심을 내면 탈이 생긴다.

46년생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여라. 58년생 지방이나 외국으로 멀리 움직일 일이 생기게 된다. 70년생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어라. 82년생 지금은 윗사람이 귀인이니 문제가 생기면 윗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94년생 하는 일의 성공으로 명성을 얻게 된다.

47년생 어떤 일이던지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 결국에는 이를 수 있다. 59년생 자신의 자위와 위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71년생 하늘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길하는 형상으로 어려움이 해결된다. 83년생 외부의 일을 길하지만 내부의 일은 잘 풀리지 않는다. 95년생 새장 속의 새가 하늘을 날게 된다. 마음먹은 대로 행동해라.

제공:당신의 멘토, 운조아(www.unjoa.com)

주간 일기예보



속속 시사식식 김치의 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11월 22일이다. 이는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치의 날'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20년 2월 11일 '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매년 11월 22일로 정해졌다. 11월 22일 김치의 날로 정해진 것은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치의 날'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20년 2월 11일 '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매년 11월 22일로 정해졌다. 11월 22일 김치의 날로 정해진 것은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